

# 머니루틴 통장 분리 가이드

## 의지 말고 구조로 관리하는 법

moneyroutine.net

머니루틴 프로젝트

## 왜 통장을 나눠야 할까?

나는 오랫동안 하나의 통장만 사용했다.

월급이 들어오고,  
카드값이 빠져나가고,  
생활비를 쓰고,  
남은 금액을 확인했다.

문제는 그 “남은 금액”이었다.

통장에 돈이 남아 보이면  
아직 여유가 있다고 착각했다.

하지만 그 안에는  
곧 빠져나갈 고정비도 있었고,  
예상하지 못한 지출도 섞여 있었다.

돈이 한 곳에 섞여 있으면  
기준이 흐려진다.

어디까지 써도 되는지,  
지금 내가 안전한지 아닌지  
판단하기 어려워진다.

통장을 나누는 이유는  
돈을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다.

흐름을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다.

의지가 아니라  
구조로 판단하기 위해서다.

## 기본 3개 통장 구조

돈을 나누는 기준은 복잡하지 않다.

아주 단순하게 세 개면 충분하다.

### ① 자동이체 통장

월세, 보험, 통신비, 구독료처럼  
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 전용 통장이다.  
이 통장은 “쓰는 통장”이 아니라  
지켜야 하는 통장이다.

### ② 생활비 통장

식비, 교통비, 소소한 소비처럼  
직접 사용하는 돈이 들어가는 통장이다.  
여기 있는 금액이  
이번 달 내가 쓸 수 있는 범위다.

### ③ 비상금 통장

쉽게 꺼내지 않는 돈.  
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대비하는 돈이다.  
이 통장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.

통장이 나뉘면

돈을 참을 필요가 줄어든다.

이미 구조가 기준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.

# 초보자를 위한 적용 순서

구조는 단순해야 오래 간다.

다음 순서대로만 해보면 된다.

1. 월급이 들어오면  
먼저 자동이체 통장으로 고정비를 옮긴다.  
이번 달 빠져나갈 금액을 미리 확보해 둔다.
2. 남은 금액 중  
이번 달 생활비로 사용할 금액만  
생활비 통장으로 옮긴다.
3. 여유가 있다면  
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 
비상금 통장으로 옮긴다.

중요한 것은  
완벽한 금액이 아니다.

지금 할 수 있는 범위에서  
흐름을 나누는 것이다.

처음에는 어색하다.

하지만 몇 달만 반복하면  
돈의 움직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.

## 가장 중요한 원칙

통장 분리는  
돈을 줄이는 기술이 아니다.

돈의 흐름을 보이게 만드는 구조다.

많이 벌어야만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.  
적은 금액이라도  
구조는 만들 수 있다.

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 것.  
금액보다 흐름이 먼저다.

적어도 3개월은  
실험 기간으로 두어라.

중간에 흔들려도 괜찮다.  
다시 나누면 된다.

통장은 단순한 계좌가 아니다.

돈의 움직임을  
눈에 보이게 만드는 도구다.

구조가 생기면  
의지가 덜 필요해진다.

그리고 그때부터  
돈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한다.

**통장은 단순한 계좌가 아니라,  
돈의 흐름을 만드는 구조다.**